

延世大学韩国语经典教材·阅读系列

주제가 있는 한국어 읽기

韩国语阅读 (高级)

韩国延世大学韩国语学堂 ◎编

付 颖任晓丽 ◎译



兴界图书出版公司

延世大学韩国语经典教材·阅读系列

주제가 있는 한국어 읽기 韩国语阅读（高级）

韩国延世大学韩国语学堂 编

付颖 任晓丽 译

世界图书出版公司

北京·广州·上海·西安

图书在版编目(CIP)数据

韩国语阅读. 高级 / 韩国延世大学韩国语学堂编.
北京: 世界图书出版公司北京公司, 2007.01

ISBN 978-7-5062-8602-2

I. 韩... II. 韩... III. 朝鲜语 - 阅读教学 - 教材
IV. H559.4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6)第137555号

Authorized Adaptation from the Korean Language edition, entitled 주제가 있는 한국어 읽기
compiled by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published by 연세대학교 출판부(서울
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Copyright © 1999 Yonsei University Press

ALL RIGHTS RESERVED

Simplified Chinese Edition © 2006 Beijing World Publishing Corporation

Chinese language edition arranged with Beijing World Publishing Corporation through PK Agency,
Korea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mechanical, photocopying, recording or otherwise, without the
prior permission of the publishers.

本书封面贴有 Yonsei University Press (延世大学出版部) 激光防伪标签。无标签者不得销
售。

书 名: 韩国语阅读(高级)

作 者: 韩国延世大学韩国语学堂

译 者: 付 颖 任晓丽

责任编辑: 陈 洁

出 版: 世界图书出版公司北京公司

发 行: 世界图书出版公司北京公司

(地址: 北京市朝内大街137号 邮编: 100010 电话: 64077022)

销 售: 各地新华书店和外文书店

印 刷: 三河市国英印务有限公司

开 本: 787mm*1092mm 1/16

印 张: 16

字 数: 185千

版 次: 2007年1月第1版 2007年3月第2次印刷

版权登记: 图字01-2006-4319



ISBN 978-7-5062-8602-2/H·958

定价: 29.00元

版权所有 侵权必究

차례 目 录

머리말 序	1
이 책에 대하여	2
中文导读	4
차례 目录	5
제 1 과 인연 因缘	7
제 2 과 이 땅의 한 끝 在这片土地的尽头	17
제 3 과 푸르다 - 편견 없는 문화를 위하여 蓝色——为了没有偏见的社会	37
제 4 과 한국인과 호랑이 韩国人和老虎	49
제 5 과 한국의 시 韩国诗歌	65
제 6 과 늙지 않는 사람은 없다 没有长生不老之人	91

6 주제가 있는 한국어 읽기

제 7 과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 送给最后一名的喝彩	101
제 8 과	한국의 지리 韩国地理	119
제 9 과	정보화 사회 信息化社会	135
제 10과	서편제 西便制	149
해답 解答		193
단어 색인 单词索引		205
번역문 参考译文		213

머리말

序

中韩建交以来，两国间的政治、经济、文化往来日益增多，对韩国语人才的需求也不断扩大。为了适应这一需要，国内许多学校相继设立了韩国语专业。目前在我国，由于韩国语专业是一个年轻的学科，所以教材比较匮乏。尽管已经有了一些精读教材和会话教材，但阅读教材却少之又少。

韩国延世大学的韩国语学堂多年来一直致力于对外韩国语教育的研究，是世界著名的对外韩国语教育权威机构，其编纂的很多教材在世界各地发行。前不久，欣闻世界图书出版公司拟出版延世大学韩国语学堂精心编写的全套韩国语阅读教材，作为多年从事、关注韩国语教育的一名教师，我深感欣慰。当出版社要我为之作序时，我又仔细阅读了这套《延世大学韩国语经典教材·阅读系列》，竟至爱不释手。这套阅读教材不是单纯的文章集合，其结构新颖，内容丰富，能使学习者或兴致盎然、或感慨万千地接触各种有深度、有思想的文章，且难易度由初级经中级至高级，非常适合学习者使用，有助于学习者提高阅读能力及提升总体语言能力。尤其值得一提的是，世界图书出版公司对这套教材并非单纯影印，而是为每篇课文都附了参考译文，大大方便了中国学生的学习。

世界图书出版公司此举可谓弥补了中国韩国语教育教材的不足。相信这套阅读教材一经推广使用，必定成为中国韩国语教育园地的一朵奇葩。

二〇〇六年深秋于大连

林从纲

이 책에 대하여

『주제가 있는 한국어 읽기』는 고급 과정의 한국어 학습자를 위하여 집필되었다. 이 책을 집필함에 있어 주된 목표로 설정한 것은 고급 과정의 한국어 학습자에게 필요한 읽기 이해 능력 제고와 한국 문화 이해의 두 가지이다. 전자의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책은 학습 효과가 기대되는 한국어 원전을 선정하여 특별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신고자 하였다. 후자의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본문의 선정은 한국 사회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글인가 하는 점을 깊이 생각하였다. 학습자는 이 책을 학습하는 동안 고급 수준의 어휘와 직해 능력 제고는 물론 함축·유추·비판 등 고급 과정의 학습자가 지녀야 하는 읽기 이해의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사고 방식, 한국의 사회와 문화를 주제로 하는 저명한 글을 읽음으로써 한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크게 들어가기, 본문, 더 읽어 봅시다의 3단계로 구성되었다.

들어가는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전 정보를 주기 위한 것으로 문학 작품과 평론의 경우 저자 소개, 작품 소개, 문학 작품 감상법이주를 이룬다. 전문 서적의 경우 본문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주요 개념 또는 본문의 배경이 되는 통계 숫자나 그림을 제시하였다.

본문은 학습의 중심 대상으로서 본문 제시, 내용 이해 질문, 어휘·구문·

문화 이해 질문, 단어, 이야기해 봅시다로 이루어졌다. 이를 잘 활용할 경우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훈련은 물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이며, 더 나아가 말하기·쓰기 등 다른 기능의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더 읽어 봅시다는 본문을 학습한 후 보충 학습을 위한 자료 제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학습자 스스로 읽고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여기에 제시된 자료는 본문과 관련이 있는 것들로 될 수 있는 대로 원문 그대로 게재하고자 하였다.

이 책의 본문으로는 모두 9편의 글과 5편의 시를 선정하였다. 그 동안 한국인에게 널리 읽힌 수필 3편, 기행문 1편, 소설 1편, 시 5편 등의 문학 작품과 평론 2편, 특정 주제 관련 학술적인 글 2편 등이다. 그리고 더 읽어 봅시다에 제시한 글을 장르별로 보면 수필 3편, 신문 비평 2편, 평론 1편, 주제 관련 설명문 또는 학술적인 글 4편이다. 이러한 글의 선정에 있어서는 그 글이 한국어 읽기 능력 향상과 한국 문화 이해라는 본 교재 집필 목적을 충족할 수 있을지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와 함께 각 분야 권위자의 글을 선정하고자 노력하였음도 아울러 밝힌다.

中文导读

《韩国语阅读（高级）》是为程度较高的学习者编写的阅读教材。本书旨在提升高级韩国语学习者必备的阅读理解能力并加深其对韩国文化的认识。为达到前一个目的，本书选取能充分体现学习效果的韩国语原著，并且除特殊部分外，不作任何修改。为达到后一个目的，编者经过深思熟虑，尽量挑选能增进学习者对韩国社会和文化理解的代表性文章。学习者在阅读本书的过程中，不仅能积累高级程度的词汇，提高理解水平，而且可以培养含蓄、类推、批判等高级课程学习者应该具备的阅读理解能力。此外，通过阅读以韩国人的思考方式和韩国社会文化为主题的文章，学习者对韩国的认知在广度上也会大大扩展。

本书总体上分为前言、正文、扩展阅读三大部分。

前言向学习者提供理解正文内容必需的信息。如果正文是文学作品或评论，前言就包括作者介绍、作品介绍、文学作品鉴赏方法等。如果正文是专业性文章，前言则为与之相关的主要概念和作为背景资料的统计数字或图片。

正文是学习的主要对象。它由课文，理解问答，词汇、语句、文化理解问答，单词和说话练习构成。善加利用，不仅能加强把握内容的训练，深化对韩国文化的理解，而且有助于提高会话和写作等多方面的能力。

扩展阅读是为学习者提供的补充学习材料，旨在使学习者通过自学把握内容。选取的资料与正文有一定的关联性，并且最大限度保留原作特色，尽量不作改动。

本书正文由9篇文章和5首诗歌构成。其中包括在韩国广为传诵的3篇随笔，1篇游记，1篇小说，5首诗歌等文学作品和2篇评论，此外还有2篇特定主题的学术文章。在扩展阅读中收录的文章按文体划分，有3篇随笔，2篇社论，1篇评论及4篇主题说明文和学术文章。如此安排主要是为了达到编写本书的目的——提高韩国语阅读能力和加深对韩国文化的理解。也正是出于这种考虑，本书编者尽最大努力选择各个领域权威人士的文章，以飨读者。

此外，本书最后为每篇课文都附了参考译文，便于学习者理解。

차 례

目 录

머리말	序	1
이 책에 대하여	2
中文导读	4
차례	目录	5
제 1 과	인연 因缘	7
제 2 과	이 땅의 한 끝 在这片土地的尽头	17
제 3 과	푸르다 - 편견 없는 문화를 위하여 蓝色——为了没有偏见的社会	37
제 4 과	한국인과 호랑이 韩国人和老虎	49
제 5 과	한국의 시 韩国诗歌	65
제 6 과	늙지 않는 사람은 없다 没有长生不老之人	91

6 주제가 있는 한국어 읽기

제 7 과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 送给最后一名的喝彩	101
제 8 과	한국의 지리 韩国地理	119
제 9 과	정보화 사회 信息化社会	135
제 10과	서편제 西便制	149
해답 解答		193
단어 색인 单词索引		205
번역문 参考译文		213

수필

제 1 과
인연
因緣

피천득

◀ 들어가기 ▶

1) 수필 감상법

수필은 산문 문학의 한 유형으로서 생활과 관련되는 모든 사물을 소재로 하고 있다. 또한 수필은 잠깐 동안에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짧은 길이이지만 그 주제는 복잡한 인생 유형만큼이나 다양하고, 그 형식에 있어서도 일정한 제약이 없는 독특한 문학 장르이다.

그러므로 한 작가가 그의 독특한 개성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체험함으로써 어떤 사상, 어떤 감정을 지니게 되었으며, 그것을 어떤 표현에 담았는가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감상해야 한다. 한 작가가 그 자신의 목소리로 일상성에서 찾아낸 감동어린 교훈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마음을 써야 할 것이다.

2) 글쓴이 : 피천득 (1910 -)

시인·소설가. 서울에서 출생하였으며, 중국 상해의 호강대학 영문과를 졸업하였다. 1930년 『신동아』에 시 '서정소곡(抒情小曲)', '소곡(小曲)'을 발표하여 시인으로서의 기반을 굳혔으며, 1933년 '눈보라치는 밤의 추억(追憶)', '기다리는 편지' 등의 수필을 발표, 수필가로서의 활동을 곁했다.

그의 시는 대체로 투명한 서정으로 일관되어 있다. 모든 사상·관념·대상을 배제하고 순수한 정서로 생활의 서정을 노래한다. 생활 속에서의 느낌을 섬세한 문체로 써 내려간 그의 수필들은 수필 문학의 정수를 보여준다. 주요 수필로 '인연(因緣)', '봄', '여성의 미', '구원의 여인상' 등이 있다.

◀ 본문 ▶

지난 사월 춘천에 가려고 하다가 못 가고 말았다. 나는 성심여자대학에 가고 싶었다. 그 학교에 어느 가을 학기, 매주 한 번씩 출강한¹⁾ 일이 있다. 힘드는 출강을 한 학기 하게 된 것은, 주 수녀님과 김 수녀님이 내 집에 오신 것에 대한 예의도 있었지만 나에게에는 사연이²⁾ 있었다.

수십 년 전 내가 열일곱 되던 봄, 나는 처음 동경에 간 일이 있다. 어떤 분의 소개로 사회 교육가 미우라 선생 댁에 유숙을 하게³⁾ 되었다. 시바꾸 시로가네에 있는 그 집에는 주인 내외와⁴⁾ 어린 딸 세 식구가 살고 있었다. 하녀도 서생도⁵⁾ 없었다. 눈이 예쁘고 웃는 얼굴을 하는 아사꼬는 처음부터 나를 오빠같이 따랐다. 아침에 낳았다고 아사꼬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고 하였다. 그 집 뜰에는 큰 나무들이 있었고 일년초 꽃도 많았다. 내가 간 이튿날 아침, 아사꼬는 ‘스위트피’를 따다가 꽃병에 담아 내가 쓰게 된 책상 위에 놓아 주었다. ‘스위트피’는 아사꼬같이 어리고 귀여운 꽃이라고 생각하였다.

성심여학원 소학교 일 학년인 아사꼬는 어느 토요일 오후 나와 같이 저희 학교까지 산보를 갔었다. 유치원부터 학부까지 있는 가톨릭 교육 기관으로 유명한 이 여학원은 시내에 있으면서 큰 목장까지 가지고 있었다. 아사꼬는 자기 신발장을 열고 교실에서 신는 하얀 운동화를 보여주었다.

내가 동경을 떠나던 날 아침, 아사꼬는 내 목을 안고 내 뺨에 입을 맞추고, 제가 쓰던 작은 손수건과 제가 끼던 작은 반지를 이별의 선물로 주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선생 부인은 웃으면서 “한 십 년 지나면 좋은 상대가 될 거예요.”하였다. 나는 얼굴이 더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아사꼬에게 안텔센의 동화책을 주었다.

그 후 십 년이 지나고 삼사 년이 더 지났다. 그 동안 나는 국민학교 일학년 같은 예쁜 여자 아이를 보면 아사꼬 생각을 하였다. 내가 두 번째 동경에 갔던 것도 사월이었다. 동경역 가까운 데 여관을 정하고 즉시 미우라 맥을 찾아갔다. 아사꼬는 어느덧 청순하고⁶⁾ 세련되어 보이는 영양이⁷⁾ 되어 있었다. 그 집 마당에 피어 있는 목련꽃과도 같이. 그 때 그는 성심여학원 영문과 삼학년이었다. 나는 좀 서먹서먹했으니⁸⁾, 아사꼬는 나와서 재회를⁹⁾ 기뻐하는 것 같았다. 아버지 어머니가 가끔 내 말을 해서 나의 존재를 기억하고 있었나 보다.

그 날도 토요일이었다. 저녁 먹기 전에 같이 산책을 나갔다. 그리고 계획하지 않은 발걸음은 성심여학원 쪽으로 옮겨져 갔다. 캠퍼스를 두루 거닐다가¹⁰⁾ 돌아올 무렵, 나는 아사꼬 신발장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는 무슨 말인가 하고 나를 쳐다보다가, 교실에는 구두를 벗지 않고 그냥 들어간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갑자기 뛰어가서 그 날 잊어버리고 교실에 두고 온 우산을 가지고 왔다. 지금도 나는 여자 우산을 볼 때면 연두색이 고왔던 그 우산을 연상한다¹¹⁾. <셀부르의 우산>이라는 영화를 내가 그렇게 좋아한 것도 아사꼬의 우산 때문인가 한다. 아사꼬와 나는 밤 늦게까지 문학 이야기를 하다가 가벼운 악수를 하고 헤어졌다. 새로 출판된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 <세월>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것 같다.

그 후 또 십여 년이 지났다. 그 동안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또 한국 전쟁이 있었다. 나는 어찌다 아사꼬 생각을 하곤 했다. 결혼은 하였을 것이요, 전쟁통에 어찌 되지나 않았나, 남편이 전사하지나¹²⁾ 않았나 하고 별별 생각을 다하였다. 1954년 처음 미국 가던 길에 나는 동경을 들러 미우라 맥을 찾아갔다. 뜻밖에 그 동네가 고스란히¹³⁾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미우라 선생네는 아직도 그 집에서 살고 있었다. 선생 내외분은 흥분된 얼굴로 나를 맞이하였다. 그리고 한국이 독립이 돼서 무엇보

다도 잘 됐다고 치하를¹⁴⁾ 하였다. 아사꼬는 전쟁이 끝난 후 맥아더 사령부에서 번역 일을 하고 있다가, 거기서 만난 일본인 2세와 결혼을 하고 따로 나가서 산다는 것이었다. 아사꼬가 전쟁 미망인이 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었다. 그러나 2세와 결혼하였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만나고 싶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사꼬의 집으로 안내해 주었다.

뽕족 지붕에 뽕족 창문들이 있는 작은 집이었다. 이십여 년 전 내가 아사꼬에게 준 동화책 곁장에 있는 집도 이런 집이었다.

“아, 이쁜 집! 우리 이담에 이런 집에서 같이 살아요.”

아사꼬의 어린 목소리가 지금도 들린다.

십 년쯤 미리 전쟁이 나고 그만큼 일찍 한국이 독립되었더라면 아사꼬의 말대로 우리는 같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뽕족 지붕에 뽕족 창문들이 있는 집이 아니라도, 이런 부질없는¹⁵⁾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 집에 들어서자 마주친 것은 백합같이 시들어가는¹⁶⁾ 아사꼬의 얼굴이었다. <세월>이란 소설 이야기를 한 지 십 년이 더 지났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싱싱하여야 할 젊은 나이다. 남편은 내가 상상한 것과 같이 일본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닌, 그리고 진주군 장교라는 것을 뽐내는¹⁷⁾ 것 같은 사나이였다. 아사꼬와 나는 절을 몇번씩 하고 악수도 없이 헤어졌다.

그리워하는데도 한 번 만나고는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 일생을 못 잊으면서도 아니 만나고 살기도 한다. 아사꼬와 나는 세 번 만났다. 세 번째는 아니 만났어야 좋았을 것이다.

오는 주말에는 춘천에 갔다 오려 한다. 소양강 가을 경치가 아름다울 것이다.

◀ 내용 이해 ▶

1. 지은이와 아사꼬의 첫 번째 만남은 언제 어떤 계기로 이루어졌습니까?
2. 지은이가 <셀부르의 우산>이라는 영화를 좋아하게 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3. 지은이와 아사꼬가 세 번째 만난 것은 언제였습니까? 또한 지은이가 세 번째는 안 만났어야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 이유를 말해 보십시오.
4. 지은이는 아사꼬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비유가 어떻게 변하고 있으며 각각의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
5. 두 번째 만났을 때 필자와 아사꼬 두 사람 사이의 단절이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 ① 아사꼬는 어느덧 청순하고 세련되어 보이는 영양이 되어 있었다.
 - ② 계획하지 않은 발걸음은 성심여학원 쪽으로 옮겨져 갔다.
 - ③ 내가 아사꼬 신발장은 어디 있느냐고 물어 보았더니 그는 무슨 말인가 하고 나를 쳐다 보았다.
 - ④ 아사꼬와 나는 밤 늦게까지 문학 이야기를 하다가 가벼운 악수를 하고 헤어졌다.

◀ 어휘, 구문, 문화 이해 ▶

1. 밑줄 친 부분의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 1) 옆에서 보고 있던 선생 부인은 웃으면서 “한 십 년 지나면 좋은 상대가 될 거예요.” 하였다. 나는 얼굴이 더워지는 것을 느꼈다.
- 2) 캠퍼스를 두루 거닐다가 돌아올 무렵, 나는 아사꼬 신발장은 어디 있느냐고 물어 보았다. 그는 무슨 말인가 하고 나를 쳐다 보다가, 교실에는 구두를 벗지 않고 그냥 들어간다고 하였다.
- 3) 십 년쯤 미리 전쟁이 나고 그만큼 일찍 한국이 독립되었더라면 아사꼬의 말대로 우리는 같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뽕족 지붕에 뽕족 창문들이 있는 집이 아니라도, 이런 부질 없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2. 밑줄 친 부분이 담고 있는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 1) 결혼은 하였을 것이요, 전쟁통에 어찌 되지나 않았나, 남편이 전사하지나 않았나 하고 별별 생각을 다 하였다.
- 2) 그러나 2세와 결혼하였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 3) 아사꼬와 나는 절을 몇 번씩 하고 악수도 없이 헤어졌다.
- 4) “아, 이쁜 집! 우리 이담에 이런 집에서 같이 살아요.” 아사꼬의 어린 목소리가 지금도 들린다.